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7호 [루게 제23069호] 주체99(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일

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경희극 《산울림》은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알곡생산을 늘이고 사회주의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펼쳐나신 어느 한 산간지대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펼쳐보이는 작품이다.

1960년대초 강원도립예술극장에서 창작공연되고 그후 여러 예술단체들에서 무대에 올린 경희극 《산울림》은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감화력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신 경희극 《산울림》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경희극을 국립연극단에서 재창조하여 널리 공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총성의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경희극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명량한 웃음과 재치있는 해학으로 당대의 시대상을 방불하게 반영한 특색있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조국의 통성변명을 위해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며 시대를 주름잡아 달려나가는 천리마시대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숭고한 이상, 불굴의 투쟁력을 생동하게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로동당시대를 투쟁과 위훈으로 빛내여온 전세대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감동깊은 공연을 보면서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창작

가, 예술인들이 연극혁명과정에 이룩된 주체적연극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훌륭한 경희극을 내놓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성은 물론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경희극 《산울림》은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결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이 작품에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5대혁명연극의 고귀한 유산과 창조기풍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국립연극단은 경희극 《산울림》창조과정을 통하여 판독있는 예술단체로서의 실력을 다시금 힘있게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한 연극창조집단의 거대한 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혁명적인 연극은 새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혁명의 혁명가로 키우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려 우리 인민들에게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립연극단앞에는 연극혁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고 그에 토대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연극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사고있다고 하시면서 국립연극단의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국립연극단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부여하신 아버지장군님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주체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기여할 총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 리용철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철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6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의 종합훈련을 보신 소식을 14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의 종합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화는 위인칭송의 꽃으로 더욱 만발할것이다

국제사회계의 반향

위대한 사상과 품모, 탁월한 령도력으로 하여 회세의 정치원로로 칭송받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시고 온 세상에 만발한 태양의 꽃에 대한 진보적인 사람들의 찬탄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세네갈에서 진행된 《아프리카재생기념비》제막행사에 참가한 이 나라 대통령은 기념비 양향에 전시된 김정일화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고 오늘 위인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김일성화를 세네갈에서 직접 보게 된대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처럼 애국적인 꽃을 보느라니 김일성주석의 위인상이 다시금 되새겨진다고 말하였다.

《아프리카재생기념비》건설 세네갈측 대표도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이 꽃은 보면 불수록 류타리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를 자아내는 진귀한 꽃이라고 하면서 인류사 주위업에 것처럼 커다란 업적을 쌓으신 주석께서는 김일성화와 더불어 영생하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볼멸의 꽃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는 비단 아프리카대륙의 서부 대서양연안에 위치하고있는 세네갈에서만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아니다.

지난해 27개 나라와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시의 1300여개 대상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제7차 중국화초박람회때 명화의 진귀함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전시대를 떠날 줄 몰랐으며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최우수전시품상과 상장이 수여되어 만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인도네시아신문 《국제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일성화가 세상사람들이 그토록 찬미하는 명화로 되고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보면 볼수록 고상한 정서와 류타린 예측을 자아내는 이 꽃의 특이한 아름다움때문인가.

아니다. 그것은 이 꽃이 20세기 인류가 낳은 절세의 위인의 존함을 모시였기때문이다.

나이제리아 에누수출판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멸의 꽃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세계 진보적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그 길에서 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 인류는 김일성주석을 《20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칭송하면서 그이께 흠모의 정을 담아 선물들을 드리고있다.

인도네시아의 대령이었던 수카르노는 자기 나라에서 새로 육종된 진귀한 꽃에 김일성주석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였다.

김일성화는 주석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으로,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으로 만발하고있다.

기네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일성화온실개관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기네땅에 김일성화온실이 훌륭히 건립, 개관된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기네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들의 다함없는 경모심의 표시로 된다.

우리는 주석에 대한 흠모의 정을 영원히 가슴깊이 간직하고 아프리카땅에 태양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우며 널리 보급해나갈것이다.

이 나라의 공보 및 문화성 총서기는 태양의 꽃에 대한 진보적인들의 찬탄을 날로 따라 더욱 커가고있다.

다고 하면서 김일성화는 위인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기네인민의 지성과 열정에 떠받들려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대통령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프레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코브 게들레이홀레키사 주마각하

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유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경제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4월 23일 평양

프리타운

시에라레온공화국 대통령
에니스트 바이 코로마각하

나는 시에라레온특별 49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4월 26일 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필리핀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4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프란시스코 엘 베네딕토 주조 필리핀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6일 민수대의사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박길연 위무성 부장과 필리핀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 공훈국가합창단의 건군절경축음악회 관람

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조병은 수령님께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남성합창 《백두산바람 분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동지애의 노래》,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아무도 몰라》, 《북두칠성》, 《그리움의 별》, 관현악과 남성합창 《눈이 내린다》, 여성 4중창과 혼성합창 《변영하라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장의 손길따라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으며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음악회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백두산강군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남성합창 《승리의 길》, 설화와 혼성합창 《우리의 행군길》, 《승리의 열병식》 등의 곡목들은 회세의 천출위인을 모시고 강성혁명의 새시대를 앞장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강위력한 진위대인 조선인민군의 억센 기상과 전투적기백을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사회주의조국수호전과 강성대국대문을 열어제기하기 위한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인민생활향상을 과학기술로 담보하며

새 품종육성에서 이룩되는 성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과학연구부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담배를 먹이시려고 그로록 마음 쓰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우리의 가슴을 새치게 남겨주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리용철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철동지는 심장마비로 주제 99 (2010)년 4월 26일 0시 20분에 81살을 일기로 예석하게 되셨다.

리용철동지는 오랜 기간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셨다.

새로운 논벼재배기술을 받아들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과목이 기술작업입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리용철동지는 미제의 투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 손에 총을 잡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셨으며 전후시기 인민군대의 중요한 초소에서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셨다.

리용철동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선군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셨다.

리용철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21세기관현악단》경모의 정 표시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제 25 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21세기관현악단》경모의 정 표시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킴상기술을 부단히 높여주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그것이 실지 은을 벌 수 있게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희천으로 이어진 뜨거운 마음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감사문을 읽을수록 김정희동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우간다공화국 정부대표단 도착

제갈단 나미베비 교육성 부상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도착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도착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적십자 및 적반월 상설위원회 위원장 도착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적십자 및 적반월 상설위원회 위원장 도착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뒤집세라 열매담배 육종연구집단에서도 모양이 굵고 병적덜성이 강하며 수확고과 높고 신맛이 나지 않게 육종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기념행사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디아 대외정책연구소, 델리시자치회, 정보기술연구소, 뉴 호리존사, 루스포크지역연구소, 북미외무연구소, 인도네시아 드위 미트라 백트카르사사, 쉐나르 안팎회사에서 집회, 도서 전시회, 영화감상회, 회고모임, 토론회가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어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모라》, 《평양의 밤》, 《주체사상탑》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대외정책연구소 소장은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류사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과 그의 위업을 빛내게 계승하시어 조선의 위력을 민방에 떨치시는 김정일각하께 경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드위 미트라 백트카르사사장은 회고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김일성주석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정의를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 해주신데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현실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가장 독창적이고 위대한 사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로 하여 오늘 조선은 현대적인 군사기술수단들을 갖추고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짓부실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세계평화호인민들은 위대한 선군명장인 김정일각하께 가장 송년한 경의를 표시하고있다.

이 나라 신문 《키파흐 음말》 14일부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하고있는데 대해 소개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나론 카라》 14일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명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이 나라 신문 《나론 방글라》 13일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 《주체의 태양》 등 제목의 글들에서 조선인민이 영현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는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의 삶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한평생이었다. 그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세계 진보적인민의 경관과 호모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주석께서는 인류의 태양,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겠다고 강조하였다.

화약내풍기는 전쟁늑두리

남조선은 군사적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집어삼키려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 불타고있다.

남조선은 군사적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집어삼키려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 불타고있다. 미국의 호전적세력들이 편발하는 것은 이에 불타고있다. 미8군사령부는 일본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은 《미8군사령부가 전쟁수행사령부로 전환될것》이라고 하면서 《안보를 제공할것》이라고 재차했다. 호전적인 침략자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의식, 전쟁광증의 발로이다.

남조선주둔 미군은 조선침략의 별대이며 식민지통치를 위한 강점군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은 무력으로 남조선을 가로막고있어 이곳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폐허지로, 복원전쟁을 위한 거대한 핵 및 병참기지, 작전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지금까지 남조선강점 미군과 피괴국 그리고 미본토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방대한 미군부대를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정세를 격화시켜왔다. 대규모의 위험한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에서 미군이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쟁장비들을 투입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무모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일 때마다 남조선은 하나의 전쟁마당에 방불케 하였으며 조선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여기서 미8군사령부가 중추적역할을 놀랐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에 의한 살인, 강간 등 각종 범죄행위들이 피로 물고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의 나어린 내학생들을 장갑차로 깔아죽인것도 다름아닌 미강점군이다. 미국의 군사적강점침투가 계속될수록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커지고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긴장경화의 길로 치닫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을 《안보》를 위한 그 무슨 《억제》라고 묘사하면서 그의 장기주둔과 전쟁수행에 대해 떠벌이는것은 복침야망에 환장한 호전광들의 히스대리적발작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가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하고 북과 남으로 갈라져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남조선강점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오늘처럼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지 않을것이며 조선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지대로 되었을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대항을 강기화해왔다. 말발하는것은 이곳을 영구히 가로막고자 침략적인 대조선, 대아시아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리용하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을 위해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전쟁의 방법으로 전조선을 틀어쥐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대항을 유지강화하려는것은 미국의 범함없는 전략적기도이다.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정착으로 바꿀때 대한 우리의 제안에 등을 돌리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배치하는것은 그와 판관된다.

미제가 조선반도의 《안보정세》에 대해 떠드는것은 거짓이며 기만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발을 붙이고 전쟁을 추구하고 한 조선반도의 긴장경화와 평화를 절대로 기대할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그 무슨 《군사적위협》을 떠들면서 대조선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것은 조미관계를 절대로 악화시켜 전쟁도발시기를 앞당기는 의도적인 책동이다.

미제가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할수록 우리는 그에 대항하여 자위적군사력을 배백, 천배로 튼튼히 다져나갈것이다. 미국은 저들의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이 불야을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블레썬

태양절에 즈음하여 볼로비아, 민주공화단체가 기념블레썬을 발행하였다.

볼로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 조는 11일 블레썬 《자주와 김일성주석》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자주성구호의 영웅사》, 《반석같은 자립경제의 마련》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발행

기술로 제작하여 단방에 성공적으로 방사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찬양하였다.

블레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암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자주성구호의 영웅사》, 《반석같은 자립경제의 마련》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신문들

태양절에 즈음하여 수리아, 방글라데시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를 모시고 특집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바사》 14일부는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자주권을 빼앗기고 민족수난의 아픔을 당한 조선인민을 자주적인 인민으로 내세워주시고 조선을 국제무대에 올려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특집

블레썬이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오늘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명도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어,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살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블레썬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초기부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일관하게 구현하여왔다고 하면서 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공지구 위성을 100% 자체의 힘과

신문들

태양절에 즈음하여 수리아, 방글라데시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를 모시고 특집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바사》 14일부는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자주권을 빼앗기고 민족수난의 아픔을 당한 조선인민을 자주적인 인민으로 내세워주시고 조선을 국제무대에 올려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특집

블레썬이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오늘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명도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어,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살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블레썬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초기부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일관하게 구현하여왔다고 하면서 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공지구 위성을 100% 자체의 힘과

노르웨이 단체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20일 일요일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일에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르비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구약을 준수하는 비핵국가들에 대하여서는 핵무기를

빈궁청산문제에 대해 언급

남아프리카부대통령 크갈레 마 모틀레가 19일 빈궁청산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가 2008년에 빈궁을 청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잡나야를 개시한데 대해 밝히면서

중동지역의 평화

인디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의무상들이 최근 한 회의끝에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성명은 중동지역에서 포괄적인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지역 나라와 인민들에게 있어서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도 중대한 문제로

경제장성

수리아에서 지난해 경제가 5% 장성하였다.

11일 이 나라의 한 출판보도물이 이에 대해 밝혔다.

경제장성목표

라오스에서 올해 경제장성률을 7.7%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비난을 배격

수리아의무성이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비난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리아가 레바논에국력향진인 히즈볼라호에 《스쿠드》미사일을 던져주었다고 비난중상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터무니없는것으로 일축하였다.

중동지역의 평화

인디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의무상들이 최근 한 회의끝에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성명은 중동지역에서 포괄적인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지역 나라와 인민들에게 있어서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도 중대한 문제로

경제장성

수리아에서 지난해 경제가 5% 장성하였다.

11일 이 나라의 한 출판보도물이 이에 대해 밝혔다.

경제장성목표

라오스에서 올해 경제장성률을 7.7%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미국의 군사적지배책동에 맞서

최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를 저들의 《교묘한 위독산》으로 여기고 이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행사하여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사정은 달라지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돌려대고 맞서나가고있다.

이 계획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반대배격을 불러일으켰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비롯한 여러 나라 대령들은 미국의 대볼로비아군사기지설치계획을 라틴아메리카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호전적인 책동으로 판인하면서 이 지역에 그 어떤 외국 군사기지가 설치되는것도 반대하는 립장을 밝혔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항의 규탄에 직면한 미국은 볼로비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것이 아니라 《리용》하는것이라느니 뉘니 하고 변명하였다. 미국무장관들은 기자회견에서 볼로비아와 체결한 협정이 항구적인 미군기지정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데, 미군이 볼로비아군사기지를 《리용》하는것은 《대서양과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것》이라느니 뉘니 하며 이 나라에 대한 미군주둔의 전제조건을 가리우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검은 속심은 드러나고있다.

최근 에파드르에서 진행된 남아메리카국가동맹수뇌자회의에서는 볼로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기지설치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상정시키고 주권

조치가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후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오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미국의 군사적지배책동에 대항하여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최근 에파드르대통령은 해군 학교졸업식에 연설하면서 국인들이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국내외의 그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없게 준비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정부가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기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에 대항하여 지역나라들이 군사적통합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쿠바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활발해지고있다.

지난날 미국의 《교묘한 위독산》으로 불러워온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의 군사력강화와 지역적인 군사적통합 움직임은 이 지역에서 반미자주주의 운이 날로 고조되고있어 파라미국의 침략책동이 라틴아메리카의 과산의 운명에 처하고 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반미자주화흐름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될것이다.

경제장성

수리아에서 지난해 경제가 5% 장성하였다.

11일 이 나라의 한 출판보도물이 이에 대해 밝혔다.

경제장성목표

라오스에서 올해 경제장성률을 7.7%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마약박대투쟁

수리아 여러 분야에서 쟁투판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17일 중국과 베네수엘라를 원유공급, 수력발전조선설 등 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인종차별의식의 발로

반대하는 북부의 산업부르주아지들과 그것을 고수하려는 남부의 노예주들사이의 대립은 극도에 달하였다.

이러한 때에 북부부르주아지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링컨이 《흑인노예 해방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흑인노예제도를 주장하던 남부의 노예주들은 북부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1861년에 남북전쟁의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버지니아주에는 200만명의 주민들이 살고있었는데 이들 중 4분의 1이 흑인노예들이었다고 한다.

남북전쟁시 버지니아주는 노예해방을 극력 반대하면서 남북전쟁의 선봉에 서있었다.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인종차별의식의 발로

반대하는 북부의 산업부르주아지들과 그것을 고수하려는 남부의 노예주들사이의 대립은 극도에 달하였다.

이러한 때에 북부부르주아지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링컨이 《흑인노예 해방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흑인노예제도를 주장하던 남부의 노예주들은 북부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1861년에 남북전쟁의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버지니아주에는 200만명의 주민들이 살고있었는데 이들 중 4분의 1이 흑인노예들이었다고 한다.

남북전쟁시 버지니아주는 노예해방을 극력 반대하면서 남북전쟁의 선봉에 서있었다.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경제장성

수리아에서 지난해 경제가 5% 장성하였다.

11일 이 나라의 한 출판보도물이 이에 대해 밝혔다.

경제장성목표

라오스에서 올해 경제장성률을 7.7%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경제장성

수리아에서 지난해 경제가 5% 장성하였다.

11일 이 나라의 한 출판보도물이 이에 대해 밝혔다.

경제장성목표

라오스에서 올해 경제장성률을 7.7%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